

예술가와 친구들

석난희 개인전 방명록엔...교수 김환기 ‘난희얼굴’ 스케치

황인
미술평론가



석난희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태어났다. 철도병원 의사였던 부친은 나중에 철도병원의 병원장이 되었다. 석난희는 집 근처의 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광화문의 덕수국민학교를 걸어서 다녔다. 국민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이 나자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두 살 위의 언니와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서울 수복이 되어 다시 마포로 돌아왔는데, 1·4 후퇴가 일어났다. 이번에는 힘들게 부산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다. 서울과 부산을 정선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국민학교 졸업이 1년 늦어졌다.

1953년 이화여중에 입학했다. 미술 교사로 김홍수·장운상이 있었다. 1956년에 서울예고에 입학했다. 김창렬·정창섭·문학진 등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화여중과 서울예고 동기로는 최옥경·민병욱 등이 있었다.

1959년 홍익대에 입학했다. 서양화와 교수인 화가 김환기와 가까워졌다. 야외스케치를 가는 날이면 학교 교수 작업실 앞에 큰 키의 김환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주로 한강 밤섬으로 야외스케치를 갔다. 일행은 학교에서 서강까지 걸어가 거기서 나룻배를 타고 밤섬으로 건너갔다. 밤섬에는 한강을 다니는 나룻배들을 만들고 수리하는 집이 많았다. 뽕밭도 있었다. 김환기는 학생들의 그림을 일일이 봐가면서 지도를 했다. 학생들의 스케치가 미흡하다 싶으면 그날 밤섬에서 자신이 그린 몇 장의 스케치를 참고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학생들에게는 집에 가서 다른 걸 그려오라고 숙제를 주었다.

초등학교 때 한국전쟁, 두 번이나 부산 피난 김환기는 석난희에게 일본어로 ‘시타누리’라 하는 ‘애벌칠’ 작업에 대한 지도를 손수 해주었다. 애벌칠할 때부터 감정을 잘 담을 수 있도록 화면을 주도면밀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하나의 화면에 밝은 면을 두 개, 어두운 면을 두 개 미리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애벌칠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이는 게 김환기의 작품 제작 포인트였는데 이를 석난희에게 따로 자상하게 가르쳐주었다. 김환기는 자신의 작품에 들어갈 밀집 작업을 위해 징크 화이트를 개는 일을 석난희에게 맡겼다. 징크 화이트에 린시드와 테레핀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야만 밀집 작업이 제대로 된다. 린시드가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황변 현상이 생긴다. 자신보다 석난희가 징크 화이트 개는 일을 더 잘한다고 칭찬했다.



스승인 김환기가 방명록에 그려준 ‘난희얼굴(종이에 수묵, 31×26cm, 1962년)’ 앞에 앉은 석난희의 최근 모습.

[사진 석난희]

김환기 ‘애벌칠’ 노하우 특별 지도
물감 개는 일 돕자 “나보다 나네”

파리서 판화 공부도 김환기 권유 덕
베이비시터 일하며 프랑스어 익혀

목판화 하다 판목 드로잉 영역 넓혀
한번 꽃히면 사흘간 잠 안자고 몰입

석난희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80호 크기의 누드 페인팅을 엄청나게 그려냈다. 작업량에 감탄한 김환기는 그림들이 더 늘어나면 모아서 개인전을 열 것을 권했다. 당시 홍대생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하여 신문화관에서 개인전을 열어주는 특전이 있었다. 1962년, 대학 4학년생 석난희는 신문화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12월 13일, 전시장에 김환기가 찾아왔다. 방명록에 정진하기를 부탁한다는 뜻의 사인을 했다. 그리고 방명록을 한 장 넘겨 석난희의 얼굴을 쓱쓱 그리고는 ‘난희얼굴’이라 제목을 붙였다.

석난희는 파리 유학을 꿈꾸고 있었다. 1956년부터 1959년까지 파리에 있었던 김환기는 석난희에게 파리의 미술학교 입학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 1956년 파리 M. 베니지트 화랑에서 열린 김환기의 개인전 포스터는 자신의 1954년 작 페인팅 ‘삼각산’을 석판화로 만든 것이었다. 김환기보다 한 해 먼저 파리에 도착한 남관은 거기서 판화를 공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였다. 몇 장만 만들면 되는 포스터를 굳이 값비싼 인쇄 공장에 맡겨 대량 찍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자신의 전시 포

스터가 김환기가 생전에 남긴 유일한 판화작업이 되었다.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김환기는 석난희에게 파리에 가면 판화도 공부할 것을 권했다.

1963년에 대학을 졸업한 석난희는 이듬해인 1964년, 프랑스로 갔다. 우선 도착한 곳은 리옹이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베이비시터로 일하면서 불어를 익혔다. 마침 그녀가 일하는 집에 큰 작업실이 있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 불어가 익숙해지자 파리로 갔다. 에펠 데 보자르에 무난하게 합격했다.

제대로 된 석판화를 배우기로 했다. 지도교수는 다니엘이었다. 판화작품으로 꽤 찬 작업실에서 다니엘은 석판화용 라인스톤 두 개를 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먹이 빛어내는 석판화 특유의 반질 효과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는데 문제는 이를 제대로 구현할 테크닉이었다. 다니엘은 물과 기름의 반발력에 의한 석판화 특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선 물의 농도와 온도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다. 석난희는 따로 먹물에도 미량의 프루시안 블루 안료를 넣어 특수효과를 내어보기도 했다.

덕수국민학교 6학년 때 목판화와 고무판화를 처

음 해보았다. 이화여중을 다닐 때도 목판화를 했었다. 그러나 정작 서울예고에 들어가니 수업이 수채화 위주여서 판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홍대에서 판화를 배우긴 했으나 제대로 된 판화수업은 아니었다. 파리에서 접한 본격적인 석판화 수업은 하루하루가 신세계의 연속이었다. 다니엘의 도움으로 1968년 ‘아르 몽트’ 화랑에서 판화 30점, 유화 20점으로 개인전을 가졌다.

이응로·한묵·이세득·유준상 등 선배 미술인들이 포진해 있긴 했으나 파리의 한국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홍대 선배인 조각가 김윤신이 파리로 와서 생 미술에 있는 석난희의 집을 찾아왔다. 둘은 몇 달간 함께 살았다.

파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3·1절을 맞아 교민들이 한국대사관에 모였다. 목소리가 크고 표현이 적극적인 어떤 사나이가 나타났다. 한 살 위, 마산 출신의 양인환이었다. 양인환은 일본에서 고교와 대학을 다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파리에서 법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영화배우를 뺄 정도 정도의 준수한 미남에다 노래까지 잘했다. 양인환은 석난희의 알리앙스 수업이 끝나기를, 한국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상점리제 근처 중국집 접시뒀이 아르바이트가 마쳐지길 거의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다. 1969년 석난희는 귀국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졌다. 연애 시절부터 석난희는 양인환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손질해주었다. 가위질은 몇 년 전 남편이 생을 다할 때까지 이어졌다.

결혼생활은 마산 장군동에서 시작했다. 1970년 딸 인희가 마산에서 태어났다. 몇 년 후 이 가족은 상경했다. 서교동에도 따로 작업실이 있었지만, 연희동 집이 단독주택이라 작업이 가능했다. 거실에서 큰 사이즈의 페인팅 작업을 할 수가 있었다. 유화 작업은 물감이 더디게 말라 완성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캔버스도 물감도 값이 상당히 비싸다. 목판화는 하룻밤에도 작품의 결과를 알 수가 있다. 게다가 나무는 가격도 싸다.

파리서 만난 남편 머리 평생 직접 깎아줘 목판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홍대 앞 송이화방의 송 사장과 함께 인천 부둣가에 가서 수입 마티카 원목 세 개를 잘라 판재로 가공하여 연희동 집으로 가져왔다. 대패질을 하니 판재의 두께는 4cm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 판재는 목판화 제작을 위한 판목이 되었다. 판목에 새긴 이미지를 종이에 전사하는 목판화를 제작했다. 그러다가 판목 자체를 작품으로 완성하는 걸 시도했다. 붓 대신 나무 위에 칼로 한 드로잉, 이른바 판목 드로잉이 탄생했다. 대형 판목 작품의 경우 며칠이 걸릴 때도 있었다. 작업에 몰입하면 한숨도 자지 않고 사흘 밤낮이 그냥 흐를 정도로 재미있었다. 255×93cm에 이르는 대형 판목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상적인 존재들의 표면끼리의 스침이 그려하듯, 판화는 판의 표면과 종이 표면의 순간적인 스침의 사건이다. 석판화가 특히 그러하다. 판목은 판의 내부, 나무라는 존재의 내피를 갈로, 온몸으로 후벼 들어가는 작업이다.

평면으로 잘린 판목 안에는 살아있는 입체의 나무, 자연의 나무가 숨어있다. 화가의 칼은 평면 속에 숨은 자연인 나무의 결과 기운 그리고 생명감을 찾아서 드러낸다. 그래서 석난희의 화제는 언제나 ‘자연’이다. 노경에 접어든 작가는 이제 스스로가 자연이 되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석난희 목판화 ‘자연’. 70×94cm, 1982년.



1973년 서울 예술화랑에서 열린 석난희 개인전에서 포즈를 취한 이대원·석난희·이경성(왼쪽부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